

유형학적 접근 방식에 의한 실내디자인 과정에 관한 연구(II)

A Study on Interior Design Process by approaching Typological Method

한경희* / Han, Kyung-Hi

이선민** / Lee, Seon-Min

Abstract

For the useful method capable of modern expression on traditional residence architecture, a study was performed on the methodological establishment and possibility of typological method could be examined to interior design process by typological method.

First of all, through the establishment verbal of our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further investigation of environmental and cultural ideological facts, it could be extracted from natural instinct, duality, continuance, flexibility and transition. In second process, based on these results, it could be framed and described the individual typological language and, for the sake of drawing for visual and spatial typology, it was made by sketch in terms and view of possible guidance of prototype, transforming and application method. From these results of investigated sketches, it could be used for criteria of application method as the parts of visual and spatial typological elements to have an applicable expression of it's traditionality. Based on above facts, for the subjects of spatial system, form & shape system, circulation system, order system, decoration system, color & material system in interior design fields, we could propose the practical possibility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application method for built-in meaning that could be adaptable for the interior design practices. These facts were extracted from the based on visual & spatial typology, as above mention. Also, through preparing and suggesting the criteria of evaluation and measurement of design quality, we could propose the applicable methodology for further & basically Korean traditional embodiment.

키워드 : 전통성, 유형학

1. 서론

근대건축 특히 기능주의 건축의 시기와 맞물려 서구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우리의 건축과 실내디자인 분야는 오랫동안 역사참조, 장소성, 지역성과는 무관한 서구지향의 편중된 시각의 환경을 양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역사와 가치를 회복하여 독자적인 건축 형태언어를 구축하고자 했던 전통의 재구현과 정체성의 회복에 관한 논의의 제기는 70년대 국립중앙박물관 건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고 현재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성 조명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 작금 도래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다양한 문화양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대를 의미하나 우리의 것에 대한 해석과 적

용방법의 연구를 기본으로 하여 활용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문화현상과 다양성을 올바르게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다. 정체성은 발견되는 것이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우리환경의 예술적 전환과 실내디자인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 의미와 가치를 회복하여 독자적인 건축형태언어로 구축하는 유형학적 분석은 근본적인 전통개념을 기본으로 과거의 원형과 관계를 맺음으로서 연속성을 부여하고 보다 새로운 표현방법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 건축을 현대적으로 표상할 수 있는 유형학적 측면에서의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연구로서 조선시대 전통 주거건축(상류 및 중류주택)을 대상으로 그 공간구성체계를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현대 주거공간의 실내디자인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본다. 한국 전통건축은 서구건축과 비교해 볼 때 형태적으로 일관된 모습을 가지고 있으나 공간적으로는 다양하고 역동

* 정희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 정희원, 신홍대학 실내디자인과 조교수

적인 건축철학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그 특징을 살펴 접근할 수 있는 요인을 추출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전통성의 올바른 계승이라는 기본 개념 하에서 실내디자인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우리의 것을 이어나가고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를 찾고자 한다.

2. 한국전통성 구현의 언어적 유형의 추출과 공간유형의 분석

2.1. 전통건축에서 나타난 언어적 유형 추출

건축에 있어서의 서술은 보통 2가지의 형태, 즉 그래픽과 언어로 이루어진다. 그래픽적 서술은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형태와 과정에 내재하는 원칙에 대한 단서를 연구할 수 있게 하고 시각적 증거를 제공한다. 언어로 된 서술은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의 이름 붙이기와 유형화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¹⁾ 말로 된 언어를 통해 우리는 의미를 시각적 증거에 부착시킬 수 있고 우리의 인식을 정화시킬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개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면 벽난로라는 용어는 가정, 마음, 핵심, 정체성, 공동사회, 따뜻함, 지속, 안정성, 작은 거주지라는 개념을 포함한다. 따라서 건축유형에 대한 연구는 접근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한 틀을 창출하기 위해 그래픽과 언어로 된 서술을 조합해야 한다.²⁾ 또한 형태연구의 기본 목표는 통찰력이며 가장 단순한 기술, 즉 그래픽적 묘사에서도 중요한 식견이 드러날 수 있다.³⁾ 그러므로 과거 전통건축에서 나타나는 현상적 특성들과 정신적 특성들에 대하여 실내디자인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적 개념언어로 도출시키는 문제가 우선적 과제이다.

유형의 연구는 형태들의 본질적이고 지속적인 특성들과 표면적이고 부수적인 것들을 구별하며 유형연구의 기본적인 방법들은 비교로서 단순한 용어나 도표상의 묘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고도의 복잡성을 갖춘 기하학적, 수학적 묘사까지 영향력을 미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 전통 건축에서 나타나는 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문헌적 자료와 실제 이미지 사진들은 대상으로 언어적 유형추출을 모색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시각적 특성들을 추출하여 변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언어적 유형의 추출 배경

건축문화는 나라마다 그 고유의 자연환경과 전통적인 인습에 의하여 생성되어 전해 내려오기 때문에 각기 독특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 또한 건축물은 역사적으로 진화 발전되어지는 생명체와도 같으며 형식론적인 유형과 미학적인 의미매개체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반하게 된다. 나아가 형태론적 조직뿐만 아니라 공간형태도 인간생활의 실체를 규명하게 되는데 특히 주택은 인간의 생활을 담는 용기

로서 그 사회의 역사적 경험과 전통을 반영하는 생활문화의 총체적인 산물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통주택에서 나타나는 언어적 유형의 추출을 위하여 전통주택의 무형적 원리를 이해를 통하여 시각적 유형의 잠재적 의미를 파악하고 전통 주거건축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을 위하여 그 배경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a. 환경적 요인

자연적 조건이란 하나의 지역을 구성하는 고정적인 조건으로서 특히 우리 나라의 자연환경은 인간의 문화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화는 인간의 능력이 환경의 제약 속에서 그 제약을 극복하고 조화를 얻을 때 나타나므로 이러한 자연 환경적, 풍토적 여건을 바탕으로 형성된 건축의 특성을 추출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는 유형학적인 대상의 추출을 위한 것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기후적 요소: 대륙과 반도적 특성은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기후의 양면적 특성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생활성향에 극단적인 치우침보다는 자유자재로운 융통성을 가지게 하며 양면성을 극복할 수 있는 조화를 보여준다. 따라서 건축 구조방식에서도 온돌과 마루라는 극단적인 구조가 공존하며 중용적인 건축의 성격, 나아가 내부 공간의 상호 관입, 가변적인 특성,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이중적 성격을 나타낸다.

- 지형과 지세: 지역적 특성은 도처에 완만한 구릉이 있어 풍수설에 따른 배산 지형을 구성하기에 용이하며 양택권이 발전할 수 있었으며 자연환경을 이용한 공간의 위계성이 나타난다. 또한 자연의 지세를 존중하고 그 아름다움을 즐기며 순응하는 태도는 건축물의 높이와 볼륨이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기교가 없는 소박한 형태를 이끌어 내어 자연미를 추구하였다. 따라서 자연적 지형지세 속에서 중용적인 입장의 건축물로 발전할 수 있었다.

b. 문화 사상적인 요인

- 자연주의 사상: 자연의 섭리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바탕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에 몰입할 수 있는 사상을 갖음으로서 자연에 절대적으로 순응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밀폐된 공간개념보다는 공간이 하나의 유기체이며 그곳에서 생활하는 인간자체를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여 공간을 생명적 유기체로 간주하는 자연주의적 인간중심의 건축이 사상의 근원이 된다. 이는 또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규모보다는 내적 체계의 균형을 중요시하는 특성을 가진다. 공간 구성적 특징으로는 프라이버시가 강조된 밀폐된 공간보다는 채의 확장개념과 중정의 공간구성을 통한 개방성 및 자연과 건물의 상호 관입, 인간적 척도에 의한 자연주의 현상을 들 수 있다.

- 음양오행설: 자연과 인간에 내재하는 개념으로서 음양은 우주 만물의 이원적 대립관계를 상징하며 오행은 만물의 활동요소를 '수화목금토'로 나누어 이 오행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현상이 운행되며 인생의 길흉화복이 지배된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음과 양의 변화와 역동, 반복을 통하여 공간에 생명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원론적 구조의 원천이 된다.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는 남녀의 공간구분(사랑채, 안채와 사랑마당, 안마당의 구분)에 의한 개방적 공간과

1) Paul Leaseau, James Tice, 건축의 형태와 원리, 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1999, p.192

2) Ibid, p.182

3) Ibid,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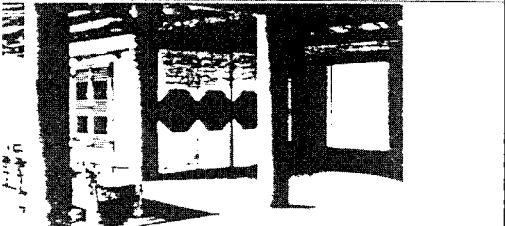



폐쇄적 공간의 반복적 사용, 안채의 낮은 평대문과 사랑채의 솟을대문(위계성), 안마당과 사랑마당(폐쇄와 개방), 안채의 중정을 중심으로 한 구심성과 사랑채의 외적인 원심성 등은 위계성, 비대칭적 구조,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우반복, 개방성과 폐쇄성의 이원적 존립을 이끌어내게 된다.

-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을 근거로 하여 땅에 대한 자연이치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풍은 바람으로 기후와 풍토를 가리키며, 수는 물에 관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인간의 운명과 대응시키는 것이 풍수사상으로서 음과 양의 대립되는 축을 기준으로 주어진 공간을 구분하고 그 분할된 공간의 질적 균형을 꾀한다. 즉 오행의 조화에 의해 자연에 역행하지 않고 자연과 동화를 이루어 동화 적용하는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주택과 택지의 균형을 기

본으로 하여 환경과 인간이 조화할 수 있는 동양적 인본주의 사상과도 통할 수 있는 체계이다. 전통건축에서 공간 구성적 특징은 사방의 시계에 있어서 변두리와 중심의 구분이 있으며, 공간의 방향이 있고 남향과 동향을 선호하며 대문, 중문, 안채, 후원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폐쇄적 공간의 반복적 구조와 비대칭적 구조, 지형을 이용한 위계성이 나타난다.4)

- 유학적 사유개념: 주거건축은 유학적 생활규범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의 공간이 분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질서를 유교적인 윤리관에 의해 상하관계로 체계화하여 신분의 차등을 공간화 함으로서 주거공간을 엄격한 규율과 형식이 내재된 생활 공간과 敬의 공간, 주공간과 부공간 등으로 분화된 가운데 상호 유기적인 연결성을 갖고있다. 삼강오륜, 주자가례와 같은 윤리규범으로서

<표 1> 언어적 유형의 추출

전통공간의 언어적 특성	전통주택의 이미지 ¹⁾	의미	전통 주거공간의 형태적 특징	개념적 추출언어
자연과의 합일적 공간		주거공간자체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로써, 공간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여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 그리고 자연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한다. 또한 형태에 있어서 무기교의 자연미를 추구하며 가공되지 않은 순수한 구조미를 기본으로 전개하였다.	-배심임수와 좌향, 적절한 규모, 경관의 차용 -처마 아래 우묵 단면이 형성되어있고 처마와 기둥으로 이루어진 공간 구성; 빛과 그늘에 의한 깊이감 형성 -목조구조와 자연 재료의 사용 -자연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붕선의 사용 -앞 뒤, 좌우 사방으로 막힘이 없는 공간으로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구성과 채광 통풍에 용이한 형태와 구조	자연성
형이상학적 상보적 이원구조의 공간		음과 양의 끊임없는 반복과 채와 칸의 개념의 공간 구성, 그리고 창호개폐방식을 통하여 공간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남성과 여성공간의 구분으로 외향적 공간과 내향적 공간으로 분리시키며 폐쇄 구조와 개방 구조의 반복적 사용,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차와 반복 대칭 구조와 비대칭구조의 복합적인 사용	-외부와는 은폐적이나 내부와 가족간의 관계는 개방적으로 형성함 -창호의 개폐를 통하여 공간의 단절과 연속을 통한 투명성이 형성 -폐쇄로부터 개방으로 단절과 개방이라는 이원적 구조로 이중적 성격을 나타냄 -공간구성에 있어서 개방과 폐쇄의 반복적 구조	이원성
유기적인 일원론적 공간		실내외 상호간의 개방으로 인하여 하나의 연속된 공간체계로서 내부공간간의 상호 연속과 외부공간까지 시각적 공간적 연속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내부 공간은 외부공간으로 외부 공간은 내부공간으로 확장되어 전개되고 기둥과 기둥사이의 간의 개념으로 구획되나 그 사이의 창호의 형식으로 인하여 시각적으로 한정되지 않도록 수평적 개념의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짐	-대청마루, 툇마루, 누마루 그리고 외부로 연결되는 공간전개 -융통적 공간 구조 -내부에서 방과 방사이의 미닫이문의 개폐에 따른 연속성과 단절 -단위 공간의 구심적, 위계적 구조	연속성
유기적인 일원론적 공간		제한된 평면에서 내부 창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동시킴으로서 구조물의 변화 없이 필요한 공간을 개방, 확대시켜 사용하며 공간의 변화를 극대화함으로써 신축성있는 공간의 배려가 나타남	-미닫이문과 들창과 같은 창호의 폐방법의 다양성으로 인한 공간 확대와 단절이 나타남 -여름, 연장, 겨울, 폐쇄개념의 통풍과 보온의 구조	가변성
		내 외부를 매개시키는 사이 공간의 개념을 두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비움으로서 내부공간을 개방시키거나 외부 공간을 흡입시킴으로서 중간 성격의 공간이 나타난다. 즉 공간과 공간사이에 중간 성격적 공간을 두어 상이한 두 공간의 기능과 성격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함으로서 공간의 상호 침투와 연속성을 이끌어 주는 여과적인 매체 역할로 반 내외부적인 성격과 중성적 공간이 나타남	- 안과 밖의 영역사이의 매개공간으로 존재하는 대청마루공간, 툇마루, 누마루 -내부 공간적 외부 공간, 외부 공간적 내부 공간적인 마당	전이성

4)자료출처: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과 박영순외 7인, 우리옛집이야기, 열화당, 1998

행동강령을 기본으로 한 인간관계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신분계급에 의한 위계성, 예개념의 공간위계, 나보다는 우리의 개념이 강조되며 가사의 규제를 통하여 공간구성의 특징이 나타난다. 따라서 가부장의 권위를 상징하며 그에 따는 공간분화를 도출해 낸다.

그러므로 공간 구성에 있어서 주체와 객체의 분리가 명확히 나타나며 여성과 남성의 공간 구분에 의한 폐쇄적 공간과 개방적 공간, 유교적 생활규범에 의한 공간구획과 위계성이 나타나며 공동의 생활개념에 의한 개방적 공유공간의 구성으로 가변적 공간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건축에서 획득할 수 있는 개념언어를 설정하여 현재의 주거공간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주택의 형태적 특징을 살펴 시각적 유형의 추출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표 1 참조>

2.2. 공간적 유형의 추출

공간을 계획함에 있어서 첫 단계는 지배적인 형태속성을 선택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건축 형태의 성격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 어떤 형태의 물리적인 강도(strength)와 같은 실용적인 것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형태가 전달할 수 있는 표현적인 메시지(expressive message)에 대한 예비적인 고려까지도 포함한다. 또한 형태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변형, 즉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에 이르는 형태 변화를 발견할 수 있다. 명백히 유사하지 않은 현상간의 연결을 알기 위한 이 능력은 창조적 식견중의 하나이다.⁵⁾ 이와 같이 하나의 형태를 추출하기 위한 많은 노력 중 유형학적 기준에 의거하여 하나의 규범적 형태를 형성한다는 것은 까다로운 작업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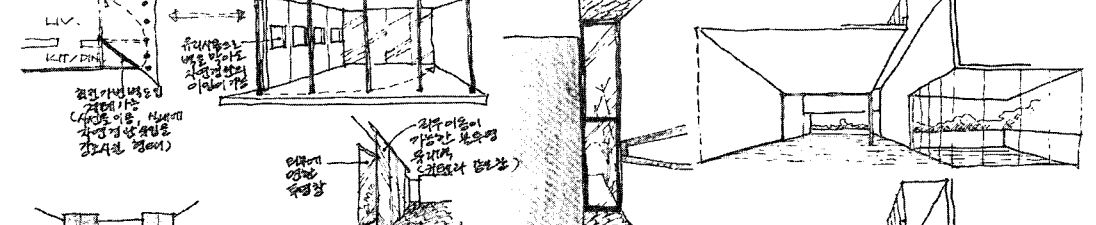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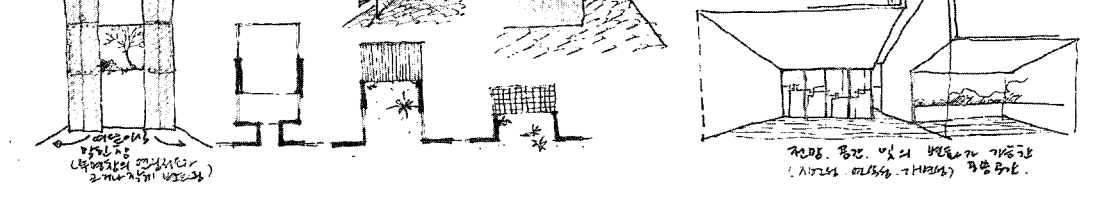
그것을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작업과정에 일치시키면서 도입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 역시 조심스러운 작업과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추출했었던 자연성, 이원성, 연속성, 가변성, 전이성의 언어적 유형과 형태언어를 기본으로 그 틀을 마련하고, 시각적 유형을 추출하여 이를 공간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2,3,4,5,6 참조>

3. 내재적 의미의 실제 공간에의 적용방안의 모색

3.1. 공간구성체계(space system)의 도입

현재의 공간구성체계는 기능성, 합리성 효율성 등에 의하여 연구되어지고 그 밀도에 있어서 복잡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나 무형적인 가치에 있어서 그 효율성은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은 내부 공간과 외부공간의 유동적인 관계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며 공간개념, 그리고 특별한 경우의 내부공간개념은 인간과의 친밀함을 통해 확립된다. 더욱이 외부 공간과 내부공간개념은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확립되며,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은 양극이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고 서로에게 종속되면서도 밀접한 연관을 맺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⁶⁾ 결국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동시에 만들어 나감으로서 내부공간 지향의 개념을 탈피하고 외부 공간을 외부 공간으로 한정짓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자연과 하나가 되며 자연적 요소가 내부 공간 깊숙이 들어오게 되며 내부공간은 강력한 실내기능만을 수용하려는 의도보다는 전후 좌우로 개방적인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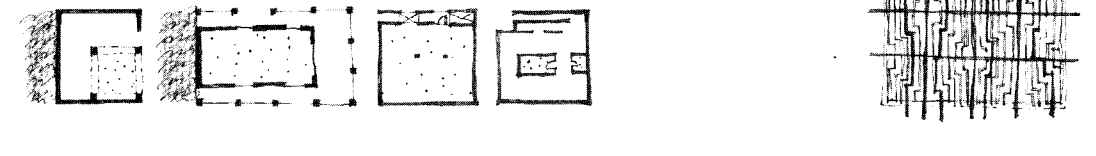
<표 2> 자연성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

형태언어	자연성: 자연과 함께 공존하고 이해하는 태도로서 자연과 실내공간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연 환경과 경관의 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순한 디테일을 통한 무기교의 순수한 형태의 사용	
자연요소가 투영되는 벽구조, 막힘과 뚫림의 이원적 창의 구조와 열림의 정도에 따라 변화 가능한 구조	
자연이 이입되면서 실내와 실외의 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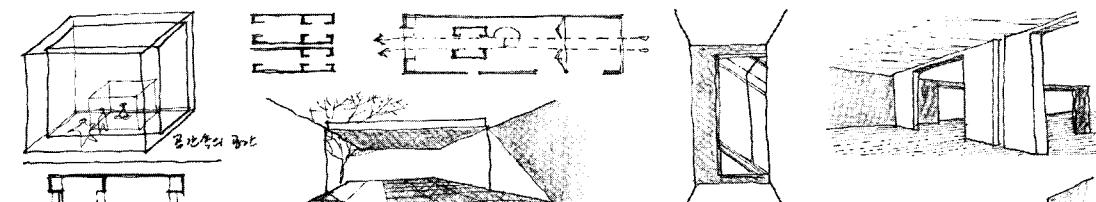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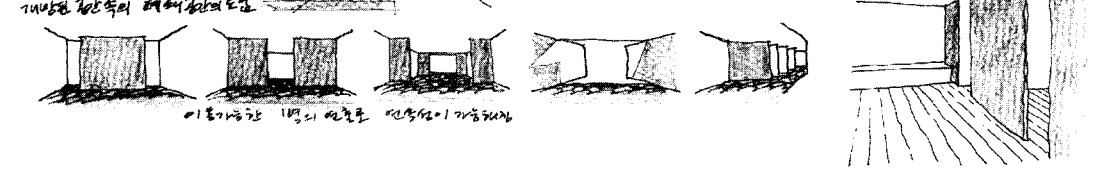
5)건축 형태와 원리, 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1999, p.11

6)G. Franco Fonatti, 건축의 기본조형원리, 박항섭 역, 세진사, 1982, p.1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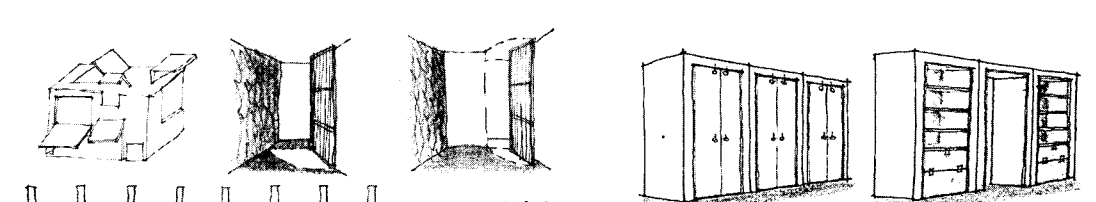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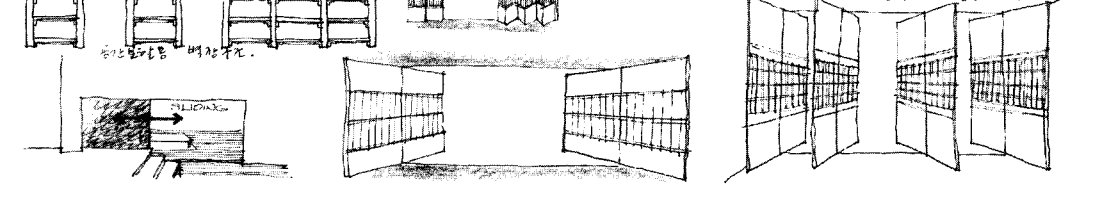
<표 3> 이원성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

형태언어	이원성: 닫혀진 공간과 열려진 공간의 반복적 사용으로 외부와 은폐할 수 있는 공간군과 개방적 공간개념이 도입되어 계획되어야 한다.
개방적 공간내에 폐쇄적 공간의 이입	
다양한 상호형식을 통한 개방과 폐쇄의 복합구조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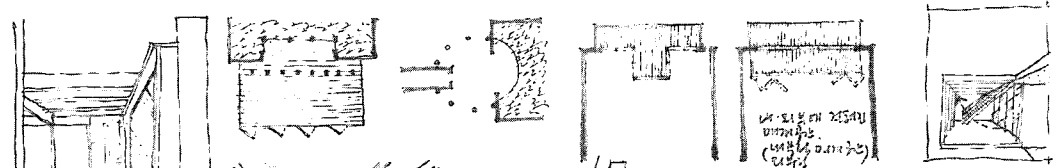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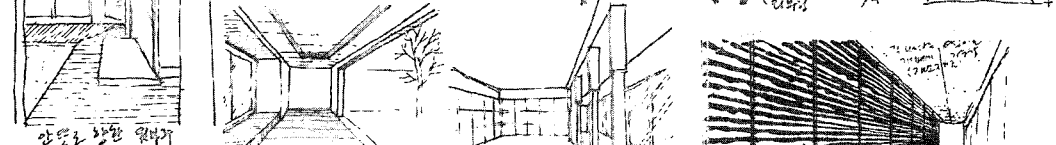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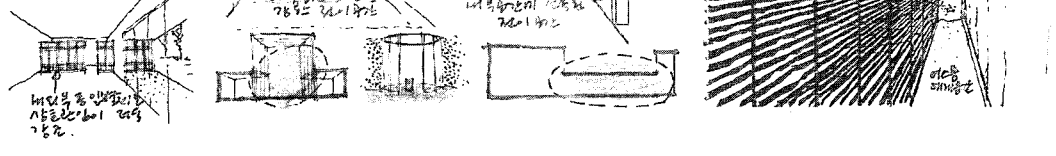
<표 4> 연속성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

형태언어	연속성- 공간순환체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고 항상 닫혀짐과 열려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디자인적 특성을 가지며 공간계획에 있어서도 이와같은 개념이 이입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과 시선에 흐름이 있고 단조롭고 막힘이 없는 동선 구조	 <p>공간상의 공간</p> <p>개방된 공간속의 계획상의 도입</p>
벽으로 차단되지 않은 연속확장구조	 <p>이동가능한 1행의 벽으로 연속성이 가능해짐</p>

<표 5> 가변성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

형태언어	가변성: 물리적으로 폐쇄되어 있으나 언제든지 필요에 의하여 변화될 수 있는, 즉 확장과 축소의 융통성을 갖는 공간개념과 디자인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일부 벽이나 창호의 이동으로 새로운 공간개념을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동 가능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
가변벽과 가변 창호의 구성	 <p>이동식벽장구조: 벽안쪽 단위로만 출입문을 여러 대동문의 변형이 가능.</p>
이동식 벽장구조의 도입	

<표 6> 전이성에 대한 공간유형의 추출

형태언어	전이성: 공간과 공간의 연결에 있어서 하나의 폐쇄된 공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흡입할 수 있는 완충적인 공간개념을 도입하여 각각의 공간특성이 완화되면서 중간성격의 공간개념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다.
공간과 공간사이의 매개공간의 설정	
아주 좁거나 낮은 또는 비어있는 공간의 설정	
외부 공간적 내부공간과 내부 공간적 외부공간의 도입	

를 연속시키게 되는 공간구성상의 특징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 내부 공간적 해석을 통한 외부공간의 적극적 도입
- 내부 공간상에 비어있는 여백의 확보
- 인위적이고 한정적인 공간배치를 지양한 융통적인 공간구조와 한정된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기 위한 공간의 유동적 구성
- 채광과 공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며 전후 좌우의 개방적이고 연속적인 흐름의 공간구성을 고려한 공간구성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3.2. 형태체계(form and shape system)의 도입

비록 하나의 물체가 그 크기나 방향에 의해 정의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은 그 윤곽선(outline)이다. 어떤 공간의 성격은 설비물(furnishing)의 윤곽선, 벽과 바닥의 선의 패턴(linear pattern), 그리고 물체들 간의 상대적인 위치로 인해 생기는 가상의 선을 관찰함으로써 분석되어질 수 있다. 선(line)은 가장 경제적인 표현 수단이며 그것은 극히 작은 공간에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통의 계승은 단순한 구조와 형태의 차원을 넘어서 구조와 형태의 분석을 통해 추출된 의미를 기준으로 다시 구조와 형태를 찾아감으로서 전통공간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적 변용점을 추출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통주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형태체계에 의하면

-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친화적이며 소박하고 기교스럽지 않은 형태의 도입
- 인간 본질의 내면적인 친근한 형태
- 순수미와 단순미 그리고 재료가 가진 본래의 질감을 그대로 살린 형태

- 주위환경과 관련된 형태

- 한정적이지 않고 확장을 꾀할 수 있는 개방적인 형태 등의 사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 건축에서 얻을 수 있는 형태체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비해 그 우수성은 훨씬 앞선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3.3. 순환체계(circulation system)의 도입

순환체계는 공간의 형태와 각 공간의 관계, 비례, 기능성 등에 의하여 정해지며 교통량과 수용량, 유동속도, 개구부와와의 관계, 조망 등에 의하여 영향받는다.⁷⁾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공간의 연속성에 대한 개념과 개방과 폐쇄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동선체계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적용방안이 모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 군에 의한 각 동선은 순환 가능해야 하며
- 개방적 공간은 가변적으로 공간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 서로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 각 공간 군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어야 한다
- 막혀진 공간에 있어서도 시각적 조망의 요소를 주어 그 흐름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하며
- 전체 공간 순환체계 내에서 내부 공간적 외부공간과의 흐름을 유도해야하고
- 순환하면서 시각적 연속성과 다양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한다.

7) Francis D.K. Ching, 건축의 형태 공간과 규범, 윤정섭·박경서 역, 건우사, p.286-287

3.4. 규범체계(order system)의 도입

규범체계는 기능적 형태적 상징적 역할을 반영시켜 그들의 상대적 중요성에 의한 가치체계를 만드는 것으로(크기, 모양, 위치)형태와 공간은 그들이 수용하는 기능에 내재하는 위계질서와 사용자와 전달하는 목적과 의미 등이 순차적 질서로 인지되며 규범화되어 나타난다.⁸⁾ 전통 주거양식에서 얻을 수 있는 이원성의 규범체계는 이원성의 개념으로 개방과 폐쇄, 적극적 공간과 소극적 공간의 교차와 반복, 대칭 구조와 비대칭 구조 등으로 나타난다. 이는 상반된 개념의 공간 구성을 통한 대비적 공간의 반복으로서

- 작은 공간과 큰공간의 반복적 배치와 연속적 배치
- 주공간과 부공간의 계층적 배치에 의한 분리
- 채워진 공간과 비워진 공간의 대조적인 구성
- 직접적 체험보다는 전이적 체험을 할 수 있는 매개공간의 설정
- 한정적 공간이 아닌 가변적 공간의 설정으로 중용적 공간의 형성
- 모듈 시스템에 의한 반복적인 구조와 형태
- 개방과 폐쇄의 이중적 공간 설정
- 공간 속의 새로운 공간의 설정
- 인공-자연-인공의 연속적인 흐름을 고려한 공간 배치 등으로 구성되며 대비를 통한 상반된 개념이나 단정적인 전개만이 아니라 음양의 조화에 의한 유기적인 규범체계도 도입되어야 한다.

3.5. 장식체계(decoration system)의 도입

장식체계는 정적인 공간에 움직임과 이야기 거리를 줌으로서 공간의 활력을 나타낼 수 있는 체계이다. 따라서 우리의 전통주택에서 얻을 수 있었던 개념은 자연과의 합리적인 성격과 무기교의 자연미로서 그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한다. 전통공간의 장식체계는 자연성의 개념으로

- 자연을 조망할 수 있는 창설치와 창살문양의 형태적 변형
- 빛의 유입을 도와줄 수 있는 투명, 반투명, 불투명 재료의 혼용을 통한 변화
- 천연 소재의 이용을 통한 구성
- 여기에 직접적인 식물의 도입과 자연구성방식의 도입 등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다.

3.6. 색과 재료체계(color and material system)의 도입

재료의 체계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체계로 나누어진다. 첫째, 구조체계나 기능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 둘째, 건축의 미시세계와 내 외부 공간의 질감, 마감 및 디테일의 처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재료로 구분된다.⁹⁾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조적인 순수미를 기본으로 한 자연성의 유형개념은 재료자체의 질감과 색채의 사용에 있어서 변형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됨을 잘 이야기해주고 있

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재료의 질감이나 색을 그대로 재현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전통성을 기본으로 전개되는 실내의 마감재료와 색채체계는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제안하여 보았다.

- 많은 표면의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마감처리
- 플래스터, 우드 그레인, 라임 워싱 기법이나 스테인 등의 질감표현
- 재료의 천연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법의 마감재사용
- 자연성에 위배되지 않는 재료의 사용과 마감

4. Feedback의 과정(평가단계); 문제점 지각(evaluating solution)-수정(revision)-적용(application)

실내 디자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많은 단계 중에서 피드백 과정은 최종적인 디자인 결과물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다. 이는 결과물에 대한 최종 점검으로서 디자인의 질에 대한 가치와 실행상의 오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작업상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수정의 과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통성의 적용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대상공간의 용도와 한국적 유형들이 잘 접목되어졌는가?
- 유형적 대상들이 잘 선택되어 졌는가?
- 공간구성양식에 있어서 설정된 유형들이 내재적으로 잘 표출되어 졌는가?
- 외향적 시각구성요소들이 거부감 없이 현대적인 공간에 맞게 구성되어졌는가?
- 처음에 의도했던 유형적 대상들이 결과물로 볼 때 연속적으로 나타났는가?
- 전통공간에서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단점들이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
- 피상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않았는가?
- 재료, 색, 질감의 표현에 있어서 현대적인 기법에 맞게 수용되어 졌는가?
- 근본적인 이해의 과정이 없이 표피적으로 수용되어 나타나 있지는 않은가?
- 우리 것에 대한 맹목적인 수용으로 비판적인 시각이 없이 동조되어 있지는 않은가?

5. 결론

보존성을 지닌 결과물들은 그것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대변하게 되며 그로 인해 독특한 문화를 감지하게 된다. 이러한 디자인 대상의 특성에 대해 더블린(J. Doubline)은 고대의 유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문화를 알 수 있듯이 하나의 제품은 그 제품이 속해있는 문화를 나타내주는 냉동된 정보(frozen information)라고 함으로서 디

8)Ibid, p.332

9)안토니 C.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 국제, 1994, p.214

자인 결과물에 대한 문화유산으로서의 소중함과 그 특성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 이에 유형학적인 관점을 빌어 한국 주택의 전통성의 계승이라는 관점에서 공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실내디자인상의 절차적 방법론을 얻을 수 있었다.

1단계는 언어적인 유형추출의 과정을 통하여 한국 전통주택에 있어서 자연성, 이원성, 연속성, 가변성, 전이성이라는 언어를 추출하였고, 특히 한국 전통건축은 '창호의 건축'이라 불리울 만큼 창호의 개폐로 인한 자연성, 연속성, 가변성, 전이성이 별개의 특징이 아닌 서로 깊은 연관관계를 가지며 공간구성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단계로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전통주거양식의 특징과 공간적 유형을 추출할 수 있는 근거를 언어로 정립하고, 3단계에서 스케치를 통한 형태확립과 변형을 통한 유형의 재정립 과정을 통하여 디자인요소와 시각적, 공간적 유형을 추출하여 여러 유형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보았다. 4단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실내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많은 구성체계에 있어서 적용방식을 모색하여 봄으로서 전통성을 계승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통성의 계승이라는 문제는 이제 우리 것을 지켜가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자존적인 디자인의 정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 항상 디자인의 절차적 이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가지면서 확립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보다 많은 검증의 과정과 실천의지가 보여질 때 우리의 것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되어지리라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1. 강영환,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서울, 기문당, 1991
2. 류경수, 우리 옛 건축에 담긴 표정들, 대원사, 1998
3. 박영순외 7인,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1998
4. 송민구, 한국인의 옛 조형의 미, 기문당, 1987
5. 안토니 C. 안토니아데스, 건축시학, 김경준 역, 도서출판국제, 1994
6.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79
7.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8. 한국 건축과 실내, 대한건축사협회, 1986
9. Francis D.K. Ching,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건축의 형태와 공간과 규범), 박경서 역, 건우사, 1981
10. G. Franco Fonatti, 건축의 기본조형원리, 박항섭 역, 세진사, 1982
11. Jurgen Joedicke, Space and Form in Architecture(건축의 공간과 형태), 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1999
12. Joel Carion, Maison, D'Architectes, Editions Alternatives, 1996
13. Rob Krier, Architectural Composition(건축의 구성론), 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1999
14. Paul Laseau, James Tice, Between Principle and Form(건축형태와 원리), 진경돈 역, 시공문화사, 1999
15. Penser L'Habite, Pierre Mardapa Editeur, 1988
16. 한국 건축사 특론 세미나집,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1987년 2학기, 미간행
17. 김동열, 도시공간디자인에 있어서 신허리주의 유형론의 적용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1995
18. 김보아, 한국 전통주거공간에서 유형학적 요소의 분석과 현대적 변용에 관한 연구, 홍익대 산미대학원, 1997
19. 도용호, 유학적 생활규범에 의한 조선시대 주거건축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4권 1호 통권 111호, pp.169-178

20. 신서영, 실내환경디자인에서의 한국성 표현에 대한 방법적 모색과 공간 작업에 관한 연구-박물관 실내디자인 모형사례-, 이화여대 디자인대학원, 1998
21. 최은석·김진균, 한국 전통건축공간의 투영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18권 2호, 1998

<접수 : 1999. 11. 10>